



임실군이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을 선정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의견문화제.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에 도전하세요”

임실군, 내달 4일부터 의견문화제 개최... 차별화된 프로그램 대폭 강화
이달 30일까지 공모... 대상에게는 상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장 수여

전국 반려인들의 축제의 장인 의견문화제를 앞두고, 임실군이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을 선정한다. 의견문화제는 의견의 발상지인 오수에서 살신구주(殺身求主)의 의견설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오수개'의 의로운 정신을 기리고, 바람직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는 축제다. 축제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수의 견공원과 의견관광지 일대에서 개최된다. 군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올해부터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 공모전과 대한민국 반려동물 스토리

영상 공모전이다.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 공모전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반려동물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연을 선정한다.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의 후보는 산사태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등 각종 위험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등 구조작업에서 활약하는 동물들 그리고 주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이 해당된다. 영예의 대상에게는 상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장 수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스토리 영상 공모전은 의

견설화를 바탕으로 반려동물과의 추억, 일화 등의 스토리 영상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영예의 대상에게는 상금과 전라북도지사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당선작은 4일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심 민 군수는 "의견문화제만이 가진 독창적인 반려동물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많은 반려인들이 찾아 오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생명존중의 반려동물문화를 정착시켜, 오수를 세계적인 반려동물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축제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견문화제 전위원회 홈페이지(www.osudog.com)나 사무국(063-640-52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과 서러움, 멋과 흥 동시에

내일 정명희 교수가 남원예춘마당서 조갑녀 살풀이 명무 펼쳐

과거 일제 침략자는 우리의 교방문화를 권번(券番)으로 바꿔 조선 최고의 예인을 창기로 전락시키는 아픈 역사를 안겨주었으며, 결국 이를 거부한 예인들이 재야로 숨어들면서 찬란했던 한국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은 역사속으로 살아져갔다.

격변의 역사 속에서 기쁨과 슬픔, 한과 서러움, 멋과 흥을 동시에 담아 낸 명무 조갑녀의 삶과 선생의 대표 출연 남원살풀이도 예외일 수가 없었으며, 남원살풀이는 민살풀이로 왜곡, 전락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6살에 남원 권번에 입소해 혹독한 예절 교육과 소리, 시조, 춤을 배웠던 어린 조갑녀의 춤은 1회부터 11회까지 춘향제를 빛낸 전라도의 대표 민속춤이었다. 결혼과 동시에 재야로 묻혀 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주변의 간곡한 청에 조 명인은 2007년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되었으며, 그녀의 춤을 아끼던 주위의 권유와 춤을 공부하던 딸 정명희 교수(조갑녀전통춤보존회 대표)가 살풀이를 전수받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조갑녀의 남원살풀이춤은 그 어떤 춤보다 즉흥성이 높아 대중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특징을 갖는 반면, 춤꾼의 자기해석 능력에 따라 춤이 매년 다른 형태로 표현



되기 때문에 춤을 배우는 후학들에게는 더 없이 어려운 춤으로, 일제의 문화통치 속에서 조갑녀의 향토성과 우리춤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명인의 열정 덕분이다.

이에 남원시는 조갑녀 명무의 정신을 잇고 선생의 춤 저변확대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 3월 선생이 생전에 거주했던 터에 '조갑녀살풀이명무관'을 열었고, 조갑녀전통춤보존회(대표 정명희)와 함께 조갑녀류 춤을 일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딸인 정명희 교수는 내일과 5월 10일 생전 조갑녀 명무의 봄을 맞는 설렘을 담아 '봄나들이'라는 주제로 남원예춘마당에서 70분 동안 공연을 펼친다.

/남원=김기두 기자

웃음과 지혜가 있는 전래동화 어린이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내달 1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1일 오후 7시 30분 전래동화 어린이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공연이 펼쳐진다. 예로부터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해 듣는 설화 속 환상적인 사건을 통해 상상력을 기르고, 따스한 인정을 느끼며 윤리와 가치, 웃음과 지혜를 배워 왔다. 어릴 적 듣고 자란 옛 이야기 속에는 오수이를 잡아먹기 위해 나무를 타던 무서운 모습으로, 꽃감을 무서워하여 밤새도록 내달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보다 더 의리와 효심이 더 깊은 정의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성격의 호랑이가 등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호랑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 뿐 아니라 큰 재미를 준다.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던 호랑이의 바보스럽고 친근한 면을 보여줌으로써 하여 극적인 재미를 주고 대결구도를 지혜로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통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으라'라는 주제보다 '용서와 관용'이 요즘 아이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기에 잘못된 사람을 응징하기 보다는 용서 해주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작품을 바꿔 표현했다. '뚝딱하니 어흥! 예매는 4월23일(화) 오전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봄 여행 주간, 태권도원에서 풍성하게 즐기자

무료입장 · 연수원개방 · 이벤트 등
각종 체험 · 전시 프로그램 마련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019년 봄 여행 오는 27~내달 12일까지 2019~20년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에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봄 여행 주간에는 태권도원 입장료가 무료다. 성인 기준 4천 원의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태권도원을 즐길 수 있다. 격파·폼새·국악 등 화려한 태권도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상설공연이 매일 2회 11시~14시까지 진행되고, 온 가족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과 전망대 관람, 볼바람을 맞으며 태권도원 내 태극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봄 여행 주간에는 태권도원 연수원을 일반인에 개방한다. 1·2·4·8인실 총 265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태권도원 연수원 이용은 태권도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예약을 통해 예약 후 숙박할 수 있다. 일반인의 태권도원 숙박은 봄 여행주간과 가을 여행주간 등 한정된 기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태권도원의 청정자연과 깨끗한 공기, 별이 빛나는 밤

하늘 등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온라인 예약 접수기간은 내달 2일부터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봄이 오나 봄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과 소전시를 운영한다. 태권도복 및 보호구 착용과 메달 만들기 체험, 태권도 폼새 이름을 주제로 한 캘리그래피 전시회인 10인 10색 태권도를 만나다 등 태권도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체험·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재단은 봄 여행주간을 맞아 태권도원 봄이 오나 봄-페이스북 이벤트도 진행한다. 태권도원을 방문해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진이나 꽃, 풍경 등 봄이 연상되는 사진을 촬영해 태권도원 공식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사진을 게시하면 태권도원 캐릭터 인형을 추첨을 통해 선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물찾기 대회와 격파 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키울 '봄이 오나 봄, 태권도원 가족캠프'(4.27.~28.)가 열리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 볼거리를 마련했다. 한편, 재단은 대한민국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여행이 있는 금요일 및 일상에서의 문화생활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정부 정책에 동참하며 4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